



현대 일본 생활세계 연구의 세계적 거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년
뉴스레터 7.8월호

<차례>

01 HK기획연구

02 HK기획연구
일본학연구지원사업

03 일본비평창간호
학술교류

04 지역전문가양성
교수인솔현지조사

05 지식정보DB
신규인력 소개

06 연구활동 동정

07 연구소 향후 일정

[연구활동]

서울대 일본연구소 HK기획연구 출범

HK 아젠다 <현대 일본 생활세계 연구의 세계적 거점>을 수행하기 위한 1단계 HK기획연구가 2009년 8월 1일 발족되었다. HK기획연구는 「현대 일본 지식의 형성」, 「현대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술」, 「지역과 정체성」, 「전후 일본의 생활세계와 동아시아」의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HK연구원과 일본연구소의 일반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획연구의 결과는 향후 <일본학 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각 기획연구의 개요와 참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 전후 일본의 지식형성

본 기획연구의 목적은 현대일본의 지식생산 시스템 재편에 대한 고찰에 앞서, 전후 일본에서의 지식과 사상의 재편과 새로운 지형 형성을 조망함으로써 현대일본의 지식 지형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상 내용에 천착하기보다는, 지식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의 움직임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그 전체적인 지평을 조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문적 제도권의 내외(内外), 지식의 생산자와 전달자, 단체와 개인 및 다양한 형태의 그룹을 포괄하는 폭넓은 조망, 나아가서는 '생활'에 밀착한 '지(知)', 혹은 평화에 대한 요구, 소수자·변경인의 새로운 사상의 출현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일본 지식사회와의 연결점을 짚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 연구책임자: 장인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 간사: 이은경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연구참여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한영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박진우 (광운대 일본학과 교수) 한정선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서동주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현대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현대의 일본사회에서 '전통'의 모습이 어떻게 유지, 변모, 재생산 되고 있으며 그것이 현대 일본인의 의식과 삶에 어떻게 투영되고 발산되는지 '전통문화'의 스펙트럼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현대 일본사회에서의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변용 그리고 이에 따른 일본인의 삶과 의식의 변화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대 일상 속 '문화전통'의 소통형태와 그 지형도를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 연구책임자: 권숙인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 간사: 이지선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연구참여자: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박규태(한양대학교 일본문화언어학부 교수)
- 박동성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이은경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조아라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01

- 지역과 정체성

이 연구는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체성과 경계의 변용과 재편의 역학과 과정을 “지역” 연구를 통해서 조망하고, 학문분야에 따른 방법론이나 접근방식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파악가능한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이론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현실 상황을 보다 정확히 추출하고 분석하여, 그것이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이 기획연구를 통해 전지구적인 규모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본 지역의 역동적 변화를 여러 분야의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책임자: 한영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간사: 조아라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연구참여자: 김순영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박동성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서동주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이중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전후 일본의 생활세계와 동아시아

본 연구는, 지역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오리엔탈리즘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지적 충격 속에서 한계를 느낀 전통적 지역연구 방법론을 극복하여 글로벌 시대의 지역연구로서 일본학을 새로이 구축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일본과 ‘타자’의 사이 및 양자의 관계설정 방식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이 제국의 붕괴 이래 동아시아에서 분리되어 전후 국가로 수축되었다가 냉전의 영향력 속에서 아시아에 복귀하는 과정을 시기적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이 시기 일본이 동아시아와 접했던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 주목하여, 전후 일본의 생활세계의 외연을 파악하고자 한다.

- 연구책임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간사: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연구참여자: 권숙인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박동성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지선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장인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정진성 (방송통신대학 교수)

일본학 연구 지원사업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2009학년도 일본학 연구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선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단독연구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음악정책에 관한 연구1: 국민가와 국민개창운동을 중심으로	이지선(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단독연구	일본이주여성의 정착과 생활: 교토의 재일코리언 1세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정은(여성연구소선임연구원)
단독연구	인식의 경계와 삶의 경계에서: 구로사와 아키라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이 의미하는 것	장경렬(영어영문학과 교수)
단독연구	메이지 일본의 근대적 서양 의사의 제도화: 조선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김옥주(의학과 교수)

일본비평 창간호 발간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발간하는 『일본비평』 창간호(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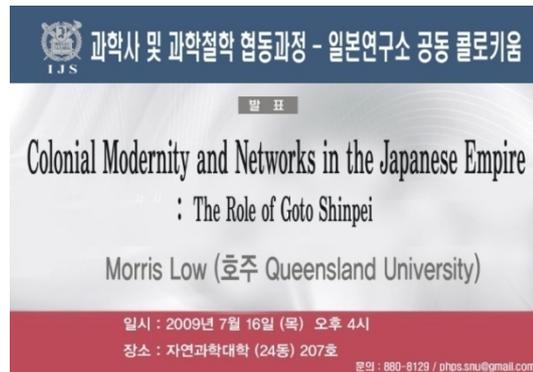


- 특집: 현대 일본사회의 형성과 미국**
- 상징천황제와 미국 (박진우)
 -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 피폭국'의 언설 (권혁태)
 - 일본의 현재 종교와 미국 (박규태)
 - 노사관계에서 본 아메리칸아이제이션 (정진성)
 - GHQ의 반공정책과 재일한인의 민족교육 (김태기)
- 주제서평: 반미=아시아주의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다(조판자)**
- 특별기고: 평화헌법과 시민사회 (이노우에 하사시)**
- 연구논단**
- 현대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 (장인성)
 - 중국의 부상과 중-일간의 파워게임 (장달중)
 - 재일조선인 사회 민족무용의 전승과 아이덴티티 (한영혜)

[학술교류]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 공동 콜로키움

Morris 교수는 일본 제국이 어떻게 식민지 도시를 개발하고 이를 제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고히 하고자 했는가를 정책입안자였던 고토 신페이(Goto Shinpei)를 통해 설명하였다. 고토 신페이는 제국의 수도로서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공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Morris 교수는 이를 공공 의료, 철도, 통신 분야로 나누어 실제의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네트워크가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식민지 근대성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해외저명학자 간담회

지난 8월 19일 뉴욕주립대 버팔로의 버크만 교수(Thomas W. Burkman)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버크만 교수가 최근 연구하고 있는 '타이-일본 관계'와 한일관계의 비교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버크만 교수의 저서 『Japan and the League of Nation: Empire and World Order 1914-1938』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 전문가 양성]

교수인솔 현지조사 한일합동 세미나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2009년도 교수인솔 일본현지조사 및 한일 합동세미나가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도쿄와 고베, 교토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로 개최 다섯번째를 맞는 교수인솔 일본현지조사 프로그램은 본 연구소 한영혜 소장, 남기정 HK교수, 서동주 HK연구교수,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 사회과학대학 권숙인 교수와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15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연수단은 도쿄에서의 도쿄대와 공동 세미나를 시작으로 고베로 이동하여 다카토리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토로 이동해 교토대에서 세미나와 학생교류가 이루어졌다.

도쿄대와의 세미나 이외에도 도쿄에서의 일정 중에는 기관방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의 인솔로 일본 국회 및 일본민주당 견학과 본 연구소 한영혜 소장의 인솔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본부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일본 국회 견학은 일본참의원 의원인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의 비서인 카노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민주당에 방문에서는 일본중의원의 민주당국제국장 이와쿠니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민단 방문은 한영혜 소장의 인솔로 민단소개와 민단박물관 견학이 이루어졌다.

도쿄에 이어 고베로 이동한 연수단은 다카토리 커뮤니티 센터에 짐을 풀고 나가타 마츠리에 참가하였다. 이 날에는 특별히 본 연구소에서 준비해간 선물을 경품으로 내놓아 마츠리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본 연구소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 다음 날에는 다카토리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도쿄대에서의 세미나는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의 아사히 교수의 “일본의 국제공헌”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같은 대학 세치야마 교수의 “성과 세대로부터 본동아시아의 노동”, 야마모토 교수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철저히 다루다”, 우치야마 교수의 “수상의 리더십”, 키미야 교수의 “오늘날의 한일문제를 생각하다”, 시미즈 교수의 “기업시스템의 비교가능성”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한편 세미나 이후 학생들간의 자주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다카토리센터 이후 연수단은 효고현청을 방문했다. 효고현청에 방문한 연수단은 효고현청 타키 카즈시게 관광국장을 만나서 효고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연수단은 곧바로 교토대로 향했다. 교토대에서는 교토대 마츠다 교수의 “재일한국인 연구에 대해서”, 같은 대학 모리모토 교수의 “사람과 신격화”라는 강의가 있었고, 이어서 교토대와 서울대 학생들의 발표가 있었다.

일본에서의 일정 마지막날에는 교토대 학생과 공동으로 재일 한국인이 모여사는 마을로 잘 알려진 우토로와 히가시쥬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를 끝으로 10박 11일의 연수단 일정이 막을 내렸다.



[지식정보 DB]

홈페이지 8월 신규 오픈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8년도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지원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향후 일본연구소가 수행하는 HK 사업의 성과를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널리 공지할 예정이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8월 31일 오픈 된다.



[연구자 동정]

연구소 신규 임용

일본연구소 HK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8월 1일자로 2명의 HK연구교수가 새로 임용되었다.



이은경 (연구분야: 일본사)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 (일본사)
- 동경대학 총합문화연구과 박사 (학술박사)
- 『戦国大名大友宗麟 (1530 - 1587) 의 領国經營과 「基督教」 受容』 (1999)
- 『羽仁もと子の思想・生活・戦争——近代日本女性キリスト者とその時代』 (2009)



이지선 (연구분야: 일본전통문화, 일본예술)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비교문화학과 졸업 (학술박사)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선임연구원, 동 대학 강사
- 『일본의 전통문화』, 『일본전통공연예술』, 『오래된 예술 새로운 무대』 (공저) 등

연구소 연구 보조원 및 인턴 임용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연구보조원 이지혜(국제대학원 국제통상 전공)가 국제대학원 Double Degree 프로그램으로 ESSEC Business School Paris로 유학하게 됨에 따라 안재익(동양사학과 석사과정)이 새로운 연구보조원으로 임용되었다. 더불어 본 연구소 남기정 교수의 연구보조원으로 강여린(외교학과 석사과정)이 임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소는 최근 정부의 청년인턴 제도 시책의 일환으로 윤희성과 여지현을 행정인턴으로 임용하였다.

연구진 연구활동 동정 (2009년도 상반기)

<HK 일반연구원>

• 한영혜

- 논문: “재일조선인사회 민족무용의 전승과 아이덴티티”, 『일본비평』 창간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8
- 현지조사: 1월 28일-30일 동경대, 기관 협력 교류
2월 1일-9일 교토대, 동경대 기관 협력 교류
7월 18일-23일 교수인솔일본현지연수 참가

• 장인성

- 논문: “영국학과 국제사회론과 근대동아시아의 국제사회화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현대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 『일본비평』 창간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8

• 김순영

- 수상: “Personal Management Reforms in Japanese Supermarkets: Position Warfare and Limited Assimilation of Conversational Communities”
ISS/OUP Prize 수상 2009. 1
- 논문: “「均衡を考慮した処遇制度」と働き方のジェンダー化
大手スーパー企業の新人事制度分析を中心に”
社会政策学会, 社会政策 1(2), 2009.3
- 번역: 오사와 마리, 『현대일본의 생활보장체계』, 후마니타스, 2009.7
- 공저: 『유통 서비스 산업 고용관계 - 음식점, 호텔업, 백화점과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9.6

• 박규태

- 연구성과: “교토와 도래인: 하타씨와 神社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5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5
- 현지조사: 2009년 8월 3일-8일 / 일본 큐슈지역의 한반도 관련 신사 답사

• 박진우

- 논문: “여성·여계천황론과 상징천황제”, 『일어일문학』 41집, 2009.2
- 번역: 윤건차,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창비, 2009.7
- 공저: 『역사속의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9.5

• 이종구

- 공저: 『人文·社会科学研究とオーラル・ヒストリー』,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編, 御茶の水書房, 2009.3

<HK 연구교수>

• 박동성

- 현지조사: 2월 23일-3월 1일 / 일본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지역
5월 14일-18일 / 일본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지역
8월 12일-27일 / 일본 동경, 이즈 시모다 지역

• 서동주

- 연구성과: (공역) 『근대가족의 성립과 증언』
(上野千鶴子, 『近代家族の成立と終焉』, 岩波書店 1994)
도서출판 당대 2009.3
“비내리는 시나가와역”과 탈(脫)내셔널리즘:
‘방법화된 이동’을 중심으로 -, 『일본연구』,
고려대학교일본연구소센터 편
- 현지조사: 7월22일-25일 자료수집활동
(교토대, 국제일본문화연구소, 리쓰메이칸대학)
7월18일-21일 교수인솔일본현지연수 참가

• 조아라

- 논문: “문화관광지의 문화정치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의 재해석, 제도화, 재인식”,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 현지조사: 7월 4일-11일 / 일본 홋카이도 지역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연수연구원>

• 윤기엽

- 논문: “일본 근대불교와 사회주의운동”, 『한국사상과 문화』 제46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09.1
“일본 근대불교의 北美지역 포교”, 『한국사상과 문화』 제48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09.6
- 수상: 공동 번역서 “일본불교사 근대,”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문화체육관광부 2009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이호상

- 논문: “The networkability of cities in the international air passenger flows” 1992-2004,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7(3)
南榮佑, 南榮佑, 李虎相, 『韓国における外邦図(軍用秘図)の意義と学術的価値』
小林 茂編, 『近代日本の地図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学出版会
박선미, 손승호, 이호상 외,
“독도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제2차 일본연구소 소장 간담회

연구활동의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일본연구소 소장의 2차 간담회가 지난 7월 29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대 일본연구소 한영혜 소장,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최관 센터장,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이원덕 소장이 참석하였다. 제3차 연락협의회는 9월 국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 지역 연구교류-연변대학 방문

한영혜 소장과 서동주 HK연구교수가 오는 21일에서 24일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교류를 논하기 위해 연변대학을 방문한다. 방문을 겸하여 연변대학 주관으로 열리는 제 1회 한중일조언어문화비교연구 국제 심포지움 참가하고, “재일조선인사회에 관한 민족무용의 전수형태(한영혜 소장)”, “나카노 시게하루에 관한 제국의 심장지리: 조선인식을 중심으로(서동주 HK연구교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소 향후 일정]

연구집담회

여름방학 관계로 쉬었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연구집담회가 2학기(9월)부터 재개됩니다.
예정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9월 9일
- 주제 : “한일관계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 발표자 : 남기정(일본연구소 교수)
- 토론자 : 박영준(국방대학교)

- 일시 : 9월 23일
- 발표자 : 이은경(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토론자 : 강태웅(광운대학교 교수)

화요세미나

여름방학 관계로 쉬었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화요세미나가 2학기(9월)부터 재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수인솔 현지조사 보고회

일본연구소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내에 2009년도 교수인솔 일본현지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보고회가 9월 17일(목)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9월 중으로 연수단의 주한 일본대사 초청 일본대사관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